



아저씨, 진짜 변호사 맞아요?

천효정 글 | 신지수 그림
문학동네 | 초등 5학년 이상

제6회 창원아동문학상 수상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가 뽑은 책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권장도서

활동1 무료 법률 상담소

“이봐, 내가 네 변호사라는 건 특급 비밀이다.”

꽉에게는 위급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고문 변호사가 있어요.

그건 바로 변호사 빙빙 씨!

혹시 여러분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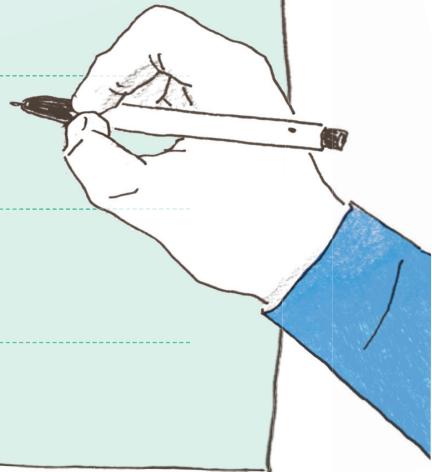
골치 아픈 문제나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빙빙법률사무소에 의뢰해 보세요.

나만의 걱정거리도 좋고,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도 좋아요.

의뢰인 이름:

의뢰하고 싶은 사건:

풀지 못한 고민거리:



변호사 빙빙 씨의 사건 기록

꽉은 같은 반 친구 우성이와 싸운 적이 있어요.

심지어 우성이 엄마는 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일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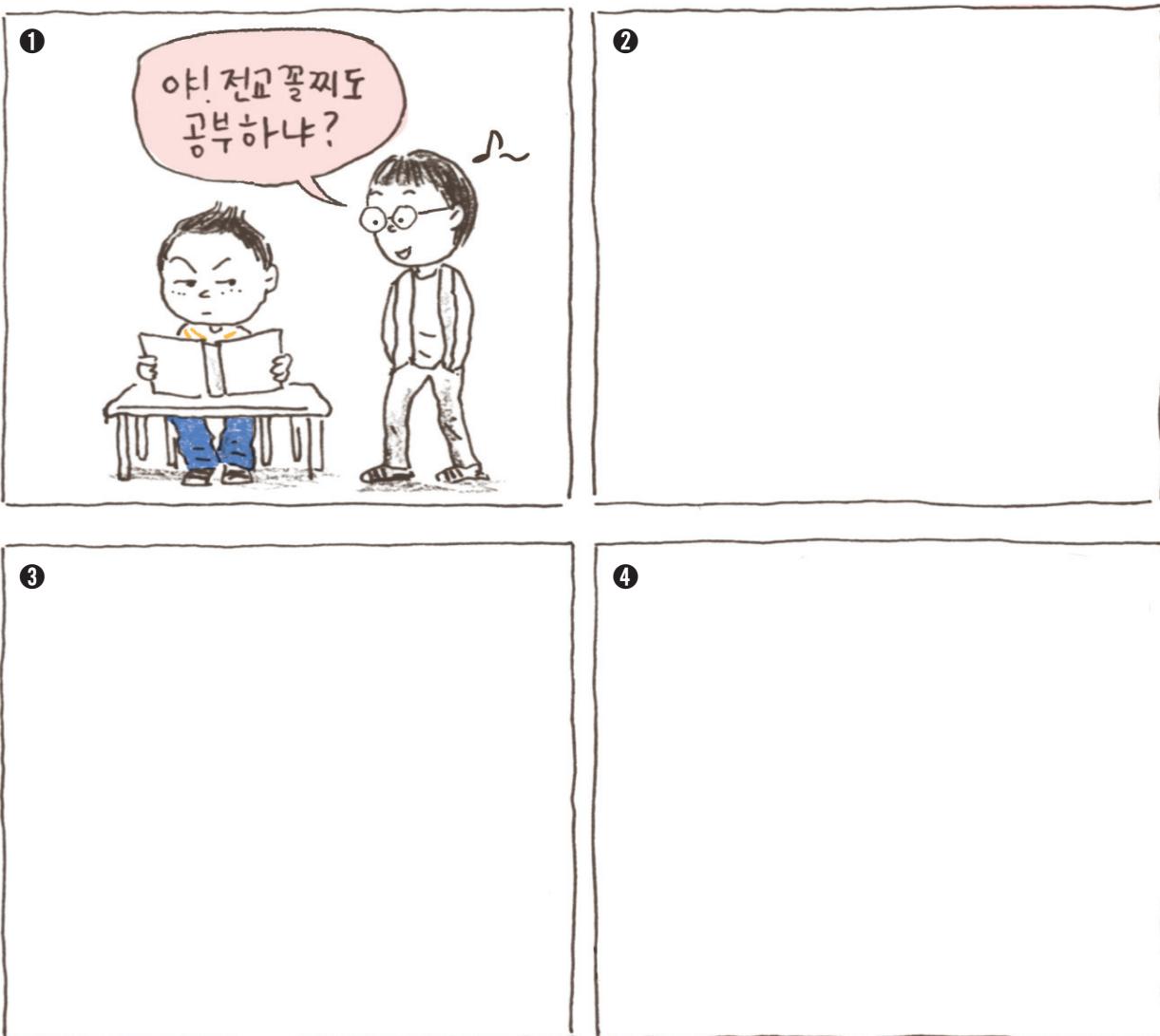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와 얘기하시죠.”

그때 변호사 빙빙 씨는 논리정연하게 사건을 되짚었어요.

싸움의 원인을 우성이가 제공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사건의 핵심을 잘 알고 있었던 덕분이었어요.

책 내용을 다시 떠올리면서, 변호사 빙빙 씨의 사건 기록을 완성해 보세요.



특종! 진실은 어디에

인간관계마저 온라인상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SNS 흥수의 시대.

터무니없는 루머와 신상 털기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해요.

연예인처럼 알려진 사람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하루아침에 '공공의 적'이 되어 악플에 시달리지요.

변호사 빙빙 씨가 그랬던 것처럼요.

각종 포털 사이트에 올라 있는 기사에 어떤 댓글이 달리는지 살펴보세요.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거나 근거 없이 비난하는 말이 있나요?

여러분이 만약 '선한 댓글'을 남긴다면 뭐라고 남기고 싶은지 적어 보세요.

① 내가 살펴본 기사 제목

② 기사 내용 요약

③ 사람들의 반응, 근거 없는 악플

④ 내가 '선한 댓글'을 남긴다면…

